

군의회가 토지 불법 등기 '말뚝'

신안군의회 Y모 의원 엉터리 서류로 주유소 허가 받기도

신안군 현직 군의회가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 이전하고 실 소유주가 아닌 제 3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로 건축 허가를 받아 말뚝을 밟고 있다.

신안군의회 Y모(54)의원은 지난 6월 농어촌 관광휴양타운 건설 예정부지인 지도읍 자동리 470번지 1천884㎡(570평)의 땅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그러나 이곳은 민자유치사업자인(유)지도개발공사가 이모(40)씨로부터 지난 2004년 평당 4만8천원~5

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사들인 곳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Y모 의원은 보상금을 받은 이씨의 토지를 지난 1995년 1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보증인을 내세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등기 이전을 마무리 했다.

또 Y모 의원은 김모(62)씨가 지도 개발공사에 매각한 지도읍 자동리 472번지 975㎡(295평)도 실제 소유

주가 아닌 김씨 명의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군에 제출해 지난달 9일 주유소를 착공,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Y모 의원은 "민자유치 사업자의 사전 양해를 얻은 뒤 제 3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며 "휴양타운 개발부지내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보상이 늦어져 신속 공사를 서두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신안=조완원기자 wncho@

순천만 어린 정체불명 피부병

주민 2명 붉은반점 고생 ... 원인 규명 요구

"양식장 고인 물 흘러보내 오염" 주장

순천만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주민들이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피부병에 감염돼 주민들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순천만 인근인 인안동 원창 앞 바닷가에서 3시간 가량 망둥어를 잡던 주민 김모(43)씨는 다음날 몸통에 3~5cm 크기의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월간 양식장 내부에 고인 물을 바다로 흘러보내면서 순천만이 오염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까지 새우를 양식하다 올해부터 전어 양식으로 전환해 오염이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일대 양식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은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 저어새, 도요새 등 200여종의 희귀조류와 120여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2008년 열리는 탐사(RAMSAR) 총회 때 공식 방문지로 확정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진도군 75세이상 노인에 장수수당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김모(49)씨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철재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는 순천만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순천만 일대에서 십여년간 망둥이와 쟁동이 낚시를 하고 있는 서모(53·순천시 인제동)씨는 "지난 달부터 붉은 반점이 있는 기형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순천만 인접 지역에 있는 20ha 규모의 양식장에서 수

진도군이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진도군은 지난 달 20일 제 156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장수수당 관련 조례를 의결, 공포해 연말까지 장수수당으로 지급될 4억 3천5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다. 장수수당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75세 이상 2천 920명이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진도=박현기기자 hypark@



올해 마지막 개매기 체험행사가 오는 11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체험 행사.

"장흥 '개매기 체험' 놓치지 마세요"

11일 대덕읍 신리 앞바다 ... 머드팩·마당극 행사도

오는 11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올해 마지막 개매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맨손으로 숭어와 감성돔, 민물장어 등을 직접 잡아보는 것은 물론 천연 갯벌에서 머드팩도 즐길 수 있다.

체험 후에는 자신이 직접 잡은 바닷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맛볼

수 있으며 극단 '갯돌'의 마당극과 각설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돼 있다.

대덕읍 신리어촌계에서 주관하는 개매기 체험행사는 1인당 5천 원(10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3천 원)의 입장료만 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여벌의 옷가지와 장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리 개매기 행사장은 장흥읍에서 지방도 23호선(용산, 관산, 대덕방면)을 경유,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개매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의 갯벌위에 그물을 쳐 놓은 후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 떼를 썰물 때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 울트라 마라톤대회 성료

'제2회 고려청자 강진 울트라 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190명의 건각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일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울트라 마라톤들은 4일 오후 6시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박 2일간 강진·완도군 일대 100km를 완주했다. 이번 대회는 강진 고려청자를 홍보하기 위해 입상자들에게 특별 제작한 청자 트로피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장성 백양사 고불매·구례 화엄사 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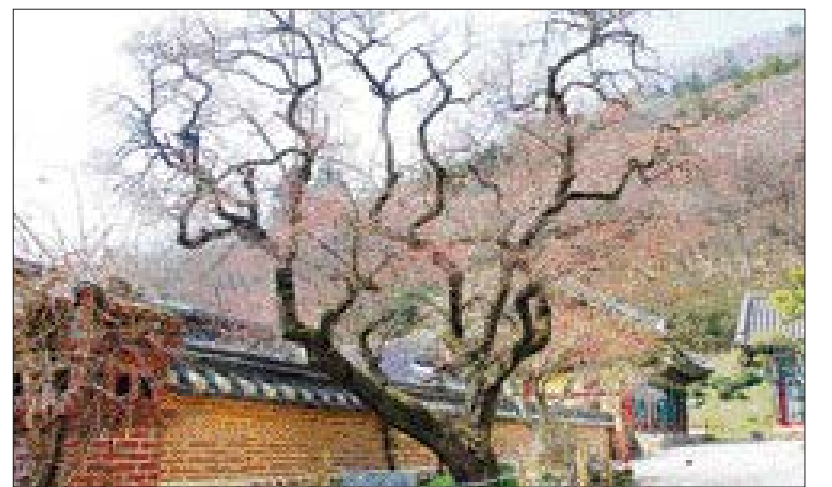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순천 선암사 무유전 매화에 이어 장성 백양사 고불매(古拂梅·사진)와 구례 화엄사 매화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호남오매(湖南五梅) 가운데 하나인 백양사 고불매는 담황색 꽃이 피는 매화 중 가장 뛰어난 품을 받고 있으며 구례 화엄사 매화는 수려한 자태를 뽐낸다.

이들 매화나무 3그루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기 여객선 잦은 결항 완도 금당 주민 '화났다'

고흥 녹동~신지 운항 페리호 적자 이유 하루 1회로 줄여

고흥 녹동항에서 완도 금당을 거쳐 신지 동고리항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평화 페리호의 잦은 결항으로 완도군 금당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평화 페리호는 녹동~신지 구간에 대해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토록 허가를 받았으나 적자를 이유로 하루 1회

씩만 운항해 왔다.

이에 따라 완도나 녹동을 방문하려는 금당면민들의 유일한 교통 수단이 하루 한차례 운항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각종 농수산물 수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평화 페리호는 지난 6월 29일

고급~강진 마라도 연륙교 개통에 따라 여객수요가 늘어난 약산도 당목~금일도 도장항 구간에 투입돼 주민 편의는 뒷전인 채 수익 위주로 운항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존 여객선 운항 구간인 약산 당목과 금일 도장항 항로에 평화 페리호가 운항되면서 파단 경항으로 인한 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당면 이장단과 기관장들은 최근 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녹동~신지 구간 여객선 운항을 늘려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당면민들은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초등생 IT교실 운영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광양교육관에서 관내 초등학생과 직원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하계 어린이 IT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인재개발원 주최로 개설된 어린이 IT 교실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스스로 숙제하기'과정(1~3학년 대상)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인터넷에 내집마련'과정(4~6학년 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토지보상 15년 민원 공무원이 나서 해결

무안군청 김용국씨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5년 묵은 토지보상 민원이 해결됐다.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이영근(62)씨의 땅 1천157㎡(350평)가 망운면사무소 진입도로 부지가 수용된 것은 지난 1991년. 당시 예산이 부족했던 무안군은 이듬해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씨로부터 '선 토지 수용 승락'을 받았다.

그러나 군수와 실무자가 바뀌면서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씨 개인사정으로 채무자들이 땅에 재산 압류를 한 뒤인 93년에야 예산이 책정됐다.

이때부터 먼저 압류를 해제해 토지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군 입장과 우선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씨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15년간 방치돼 왔다.

지난 1월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으로 부임한 김용국(46·사진)씨



는 이같은 사정을 확인한 뒤 15년 묵은 민원 해결에 나섰다. 김씨는 4개월간 무안신용협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무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실덕 작업을 벌였다.

김씨는 먼저 압류를 풀어주면 땅값을 지불할때 모든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채무자들을 설득해 결국 7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김씨 도움으로 15년 민원이 해결되고 신용불량자 명예를 벗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김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신뢰가 부족해 지금까지 민원 해결이 지연된 것 같다"며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여수에 '요트대학' 강좌 개설

市, 전국 최초 요트·범선 운항 과정 개강

여수시가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요트대학' 강좌를 개설한다.

요트(윈드서핑)와 범선 운항법을 배울 수 있는 요트대학은 오는 18일부터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개강한다.

전남 요트협회가 운영하는 요트대학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요트 과정은 1기당 20명씩 180명, 범선 항해과정은 1기당 40명씩 360명 등 총 54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수강료는 요트과정은 42시간에 5만원, 범선항해과정은 30시간에 7만원이다.

1기 과정 60명은 오는 16일까지 전남 요트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공지사항이나 전남요트협회 홈페이지(www.yachtschool.c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19-537-4511).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光州日報 記事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안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광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합평 324-8111	